

“이웃사랑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힘쓰겠다”

나눔봉사 귀감 노연택 목포시바르게살기협회장

집수리사업·밥차 지원 등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 앞장 지역 안전지킴이·환경정화·자매도시 교류 활동도 활발

평소 나눔봉사를 지속해 온 노연택 목포시바르게살기협회 회장이 최근 연말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0만원을 기탁, 귀감이 되고 있다.

노연택 회장은 평소 삶의 철학을 목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목포시 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명예동장, 목포시바르게살기협회 회장, 목포시자율방재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집수리 사업, 밥차 봉사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참여하고 있다.

사회 취약 계층에게 사랑의 쌀과 연탄 나눔 행사도 적극 전개해 짐승이 자자하다.

노 회장은 2020년 제58회 목포시민의 상을 수상한 바 있다.

노 회장은 2015년부터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 회장을 역임해 정주 폭우 피해 주민 위문, 세월호 방문객 3개월간 무료 음료 봉사, 독거노인 무료 식사 대접, 복지관 나눔 행사,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 방역 활동·위기 극복 성금 1천만원 기탁, 구례 수해지역 사랑의 자장면(700인분) 나눔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또 시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질서·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2020년부터는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장을 맡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주 2회 방역·방역물품을 지원했고 풍수해 대비 예찰 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역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지역 사회 안전에 앞장서 왔다.



경로당, 독거노인, 청소년 가정 등 관내 불우한 가정을 방문해 백미, 김장 김치, 생활 필수품, 난방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왔다.

2007년 6월부터 실시한 연산푸른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인근 행정복지센터의 롤 모델이 돼 목포시 전역에 마을음악회가 열리는 기반을 제공하고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3천만원을 기탁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지역 우수 인재 6명에게 매년 300만원(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다. 지역 독자들에게는 장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더불어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조성에 노력해 왔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회장으로 서우해 목포시 상동상리사회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여름철 보양식 주어탕과 자장면 나눔행사, 관광객맞이 환경정화활동 참여,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 목포항구축제에서 시민들의 위생과 착한 가격 서비스로 음식부스 운영 및 무료 음식 봉사, 달리도 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날에 쌀 10kg 10포대, 무류담요 100개, 축구화 등 달리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자매교류도시 청주시협의회 방문으로 목포특산품 홍보와 목포관광지 소개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교류 활동을 전개해 지역 홍보에도 앞장섰다.

노연택 회장은 “12월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과 연탄 나눔행사, 송년떡국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며 “목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나눔 봉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혜선기자



담양 수북농협, 고객 김장체험 행사 성황

담양 수북농협협동조합은 7일 “최근 로컬이용 도시민을 대상으로 김장 체험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4년째 추진하는 김장 체험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자가 많아 올해 550여 가족이 김장 체험에 참여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김장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어른·아이 모두 재미있고 즐거운 김장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행사에 참석해 김다운씨는 “목포에 거주하지만 광주에 오는 길이면 항상 수북농협 로컬을 찾는 충성 고객이다”며 “가족과 함께 우리가 먹을 맛있는 김치를 내 손으로 담갔다는 것이 즐겁고 보람찬 일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휴일임에도 이병호 담양군수와 관계 공무원들까지 행사장을 찾아 격려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됐다.

양남근 수북농협 조합장은 “로컬이용고객 70% 이상이 광주시민”이라며 “관내에서 생산된 신선한 김장 재료를 이용 직원들이 정성껏 양념을 준비하고 부녀단체의 협조를 얻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남부경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 안전 예방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일환으로 급성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했다.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전문강사의 ‘CPR의 중요성과 인체 골든타임 강의’를 시작으로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요령 ▲심폐소생술 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참석자 전원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작동법에 대한 실습으로 구성됐다. /오복기자



호남대 김정숙·임연희씨 우수논문상

호남대학교 대학원 뷰티미용학과(주임교수 전현진) 석사 과정생 김정숙씨와 임연희씨가 최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2 제46회 한국인체미용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또 문소희 교수는 최근 3년간 인체미용학회에서 최다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 김씨는 “여성들의 가발 착용인식과 자아효능감이 헤어스타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했으며, 임씨는 ‘MZ세대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및 자기표현이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두발표해 학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재만기자



전남도, 노사문화 우수 전국 첫 2연속 대통령상

전남도는 7일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한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전국 최초 2회 연속 수상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및 건전노사관계구축 유공자 시상식’에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인준기관 포상 수상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격려했다.

전남도의 대통령상 수상 폐거는 안정된 노사문화가 기관장과 직원의 탁월한 업무 성과로 연결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해 직원들이 안정적인 재직환경에서 업무효율을 높였다. 이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근 2년간 정량, 정성평가에서 번갈아 1위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 김영록 지사는 민선 7기 43개월 중 30개월 동안 월별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1위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호평받고 있다.

전남도의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2019년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후 2년간 평가 참여 제한기간이 끝나자 다시 인증평가에 참여해 또 다시 선정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2회 연속 대통령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 의미를 더했다.

전남도는 대통령상 기관표창과 함께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서와 포상금 700만원, 국외연수 특전까지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또 정정욱 전라남도노조 사무총장은 건전문화 정착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개인표창 영광을 안았다. /김재정기자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반부패 청렴’ 다짐식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7일 ‘준법경영·공정경영·투명경영’ 실천 등 윤리 경영을 선포하고 ‘반부패 청렴의지 다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윤리경영 선포와 청렴 서약을 통해 공식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정한 전남개발공사를 만들고자 하는 장 사장의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서약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 ▲일체의 부패행위 금지 ▲사적이익 추구 등 청렴성 저해행위 근절 등 6개 실천항목을 담고 있다.

장충모 사장은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앞장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반부패 청렴’ 다짐식

동구,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광주 동구는 7일 “올해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올바른 재활용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3건을 최종 선정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한 유공 직원 3명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최우수상은 ‘올바른 재활용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가게 및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 다화용컵 사용 사업’을 추진한 최경동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계장이 선발됐다. 최 계장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행복 동구’ 조성을 위해 쓰레기 15% 감량 목표로 청소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14개소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올바른 재활용 배출 확산에 공헌했다.

우수상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 추진’으로 주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 안수희 기후환경과장이 선발됐다. 안 과장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시가지 경관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요구 해결을 위해 광주시 담당 부서 및 관련 시의원 설득, 광주시 5개구청장협의회 안전 상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해당 조례가 개정돼 주민들이 연간 25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일조했다.

장려상은 ‘2022 총장 르네상스 라온 페스타’ 등을 통해 원도심 총장 상권 부활을 위해 노력한 박상기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이 선발됐다. 박 주



최경동, 안수희, 박상기

무관은 ‘제19회 추억의 광주충장 월드컵스틸’ 개최 기간동안 야간 프리마켓, 푸드트럭 야시장, 총장 프라이데이, 한복 패션쇼 등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충장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동구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게 실적 가점, 인센티브 부여, 국내 선진지 견학 기회를 포상하고 해당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적극 행정 사례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전파해 공식사회의 소극 행정 근절과 창의·적극적인 공식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1천여 동구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통해 10만 6천여 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오복기자



농협나주시지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봉사

농협나주시지부는 7일 “최근 나주시 산포면에서 따뜻하고 쾌적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익수 산포농협 상임이사를 비롯 농협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포면 덕레터리길 김모씨 다문화가정을 찾아 도배작업을 실시했다.

6일엔 동강면 전모씨 농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10일에는 반남면 윤모씨 농가를 찾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나주시지부는 지난해 취약가구 3농가, 홀몸노인 4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실시해 효용을 얻었으며 올해도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3가구를 지원하게 됐다.

권용대 지부장은 “주거환경이 개선돼 어르신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정환기자

여수 홍보대사에 가수 김다현·강지호·김예정 위촉

여수시는 7일 “가수 김다현, 강지호, 김예정을 여수시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 홍보대사는 앞으로 노래와 각종 행사를 통해 전국 최고의 해양 관광 도시 여수를 알리고,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가수 김다현은 TV조선 미스트롯2 3위 등 각종 트로트 경연대회 입상과 TV 출연으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 출신인 가수 강지호는 ‘그리운 여수’ 등 고향 여수 사랑을 알리는 노래로 활동 중이며, 지역 축제에서 초대가수로 활약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가수 김예정은 여수MBC 라디오 ‘신나는 오후’ 코너를 진행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 왔고, 시민들을 위한 노래 강사로도 활동하는 등 앞으로



로도 큰 역할이 기대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국에 여수의 아름다움과 정겨움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성기자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푸른꿈 담그는 날’ 행사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전라도 전통김치를 체험하는 ‘푸른꿈 담그는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김장체험을 통해 광주푸른꿈창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모든 것이 간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품앗이 문화인 김치를 담그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불편한 일’이지만 민족 고유의 전통성을 잃지 않고 김치를 만드는 과정에 담긴 ‘전조들의 지혜를 배우 보기 위해 꼭 필요한 경험’임을 체득했다”고 말했다. 광주푸른꿈창작학교 이계영 교장은 “작년에

이어 광주재능기부센터, 주월1동사무소, 주월2동사무소 등의 유관 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기부하며 앞으로 도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푸른꿈창작학교는 직업형 위탁교육 기관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20년 9월부터 대안교육 중심 위탁기관으로 전환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명상, 자전거, 생명평화, NGO와 사회참여 이동학습 등 다양한 대안교육 교과목을 신규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결혼

- 안근수(전 NH농협은행 지점장)·김덕자씨 아들 안근균, 박현택(TG영무 회장)·정순영씨 딸 혜진 양=10일(토) 오후 1시 광주 웨딩그라운드 5층 열린룸.
- 노해성(위키트리 소셜뉴스 광주전남취재부장)·조영숙씨 장남 홍채(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군, 이상수(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부장)·노영숙씨 장녀 주연양=11일(일) 오후 1시 서울 삼성전 사 초사육 5층(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부음

- 박상희씨 별세, 민영돈·민정식·민정희씨 모친 상=발인 8일(목) 오전 조선대병원장례식장 1호실 (062-220-3352).